월/요/광/장

김성재

스포츠, 한숨의 희로애락

지난 반년 동안 그리고 최근 매일 저녁 호남인들의 큰 관심을 끌어온 박진감 넘치는 사건이 하나 있다. 올해 프로 야구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아 타이거즈' 야구단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그것이다. 하위권에서 맴돌던 한 야구단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지역민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마침내 이 팀이 최강자를 결정하는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V10'의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은 절정에 이르렀다.

프로 야구는 1980년 군사독재 시절 우민화(愚民化) 정책으로 태어났다. 최고 성적을 자랑했던 호남의 프로 야구팀은 그러한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던 지역민들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우스꽝스럽게도 올해의 호남 소속 프로 야구팀이 펼치는 이야기는 약 30년 전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살기 팍팍한 어두운 세상 속으로 프로 야구가 뜻밖에도 한 줄기 기쁨과 희망의 빛을 던진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호남인들은 이 스포츠에 열광하는가? 몇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우선 동일한 규칙 아래서 벌어지는 정당한 승부의 역동성을 들 수 있다. 독재 시절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적 경쟁이 동일한 규칙 아래서 일어난 적이 없었다. 민주의식으로 무장한 스포츠 관중은 자신의 지역공동체에 소속된 팀이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히 승리했을 때 그 팀의 영웅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며 쾌감을 느낀다. 특히 암울한 시대를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렇다.

또 다른 이유로, 이 스포츠에서 펼치지는 이야기는 조작된 허구(虛構)가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관중의 눈앞에서 또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예측이 불가능한 센세이션의 연속이다. 경기장의 관중과 텔레비전 시청자는 실제 세계 속에서 실제 인간이 엮어내는 박진감 넘치는 오락의 세계 속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프로 야구뿐만 아니라 승패가 갈리는 모든 스포츠에서 발견되는 매력은 경쟁자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스포츠는 적군과 아군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물밑에서 일어나는 암투가 주는 심적인 고통에서 자유롭다. 응원 역시 분명한 편 가르기로 진행되고 양다리 걸치기의 고민과는 거리가 멀다. 한 마디로 승부를 가르는 스포츠에는 회색이 없기에 즐기기는 데 마음이 편하다.

공정한 경쟁, 재미, 투명성 외에도 스포츠는 엄숙한 의식(儀式)으로서 가슴 속에 침전된 응어리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다. 호남인들은 부당하고 비민주적 권력 행사, 차별대우, 빈곤의 한을 프로 야구에서의 승리가 연출하는 제식(祭式)을 통해 날려버릴 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악귀를 쫓아내는 제사에서처럼 프로야구 승리의 제전(祭典)에서 이 땅의 오염된 정치와 경제를 정화시키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스포츠가 표출하는 이 모든 현상들은 한 번의 짧은 호흡으로 끝나는 의식행사다. 스포츠 행사 뒤에 숨어 있는 정치경제학은 아무나 꿰뚫어볼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복잡하다. 프로 스포츠에 걸맞게 돈 버는 사람, 정치적 야망을 채우려는 사람, 미디어와 광고 종사자,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하는 선수 등이 경기장 밖에서 부지런히 움직인다. 스포츠 소비자가 느끼려고 하는 한 순간의 희로애락의 대가는 그들에게 돌아간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경기장 밖의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다. 제사보다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무당은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특별기고

안순일

대입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지난 봄 철쭉이 만발했던 무등산에 어느덧 청홍색색 단풍이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2만 2천여 광주 수험생 여러분, 이제 대입 수능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찬란한 미래를 위해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준비해 왔던 바로 그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험생 모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수업과 자율학습 등 고된 일과 속에서 시험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지금은 평소에 만들어 둔 오답 노트와 압축자료를 중심으로 교과내용을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반복학습에 열중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수험준비로 인한 수면부족과 스트레스 등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대체 운동을 통한 체력 관리, 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같은 수험생의 기본은 실천하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은 가장 높은 집중력이 필요한 시기이며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간임을 명심하십시오. 아직 정리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자기 암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논어 옹야편에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知者)'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잠시 접어둡시다. 오직 공부하는 자체를 즐기며 '한번 해보겠다'는 목표 의식을 갖는다면 남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수능성적 전국 1위와 4년제 대학 진학률 전국 1위, 수능 1·2등급 점유비율 전국 1위라는 '실력 광주'의 명성과 전통이 여러분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이 가까워지면, 차가운 날씨를 무릅쓰고 고사장 교문 앞을 지키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자녀들 기르고 가르치느라 고된 일 하시면서도 밤늦게까지 곁을 지켜주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 학생들이 수험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지극한 정성을 잊지 않고 당신의 어여쁜 아들, 딸들이 멋진 모습 좋은 결과로 기대에 꼭 보답해 드릴 겁니다. 학생들을 친자식, 친동생처럼 여기며 지도하고 격려해 오신 선생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수능 100일을 전후해서 각 학교를 격려차 방문했을 때, 여러 선생님들의 각오와 열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탁월한 수업능력과 전문성이 밑거름이 돼 '실력 광주'의 전통을 이어온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마지막까지 펼쳐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수험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이 삼위일체가 돼 세워주실 금자탑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능관리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고사장 점검도 사전에 완료할 것입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명재상 관중이, "작은 포대는 큰 물건을 용납할 수 없고, 짧은 두레박줄은 깊은 우물물을 길을 수 없다"고 말한 바와 같이, 그동안 광주학생들이 길러온 재능과 실력으로 큰 포대를 만들고 긴 두레박줄을 묶어 올해도 수능과 대학 진학률 전국 1위의 쾌거, '실력 광주'의 전통을 유감없이 이어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는 11월 12일 시험을 마치고 고사장을 나오는 우리 수험생들이 함박웃음을 터트리며, 부모님을 등에 업고 신나게 맴돌이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손을 잡고 힘들었던 노고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드리는 광경도 그려봅니다. 우리 수험생들 모두 기쁘고 감격스런 그날을 떠올리며 마지막 투혼을 남김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육감〉

법조 칼럼

정회일

양형에 대한 단상

조두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필자 역시 딸을 키우는 아비의 입장에서 그 범행의 끔찍함과 뻔뻔스런 범인의 태도에 몸서리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필자는 법관의 한 사람으로서 법관의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큰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다.

현직 법관인 필자가 조두순 사건과 같이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이번 기회에 법조생활 동안 양형과 관련하여 생각하던 몇 가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오래된 법정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법관이 타당한 양형을 할 수 있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것과 같이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의 최장기간인 15년(가중하는 경우 25년) 사이에 보다 장기간의 유기징역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징역형의 최장기간을 15년으로 정한 것은 1953년 형법제정 당시부터이다. 과거 70년 사는 것을 고래희(古來稀)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남성조차 평균수명이 80세에 육박하고 있고, 70대에 살인까지 하는 강력범죄자도 있다.

또한, 법정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면허가 취소된 오토바이 폭주족이 매일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그 오토바이가 125cc 이하라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관이 정할 수 있는 형은 경합범으로 최대 벌금 45만원이다. 1995년 법정형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 이후 물가가 상승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은 변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고물상 2명이 고물을 줍다가 수리중인 주택에서 해체되어 있는 철제 창틀을 주워갔다가 발각되어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정형이 최하 징역 1년이다.

만약 검사나 법관이 죄질에 맞게 형을 정한다는 생각으로 폭주족을 100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고물상을 벌금형이나 1, 2개월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당장 사표 쓰고 국회로 가라(입법부의 영역임을 의미)"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끝으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도 생각해볼 점이 있다. 1심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해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서류로만 재판하는 약식명령 사건에서는 더욱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다.

필자가 직접 경험한 예로 시장길에서 서행하는 여성운전자의 자동차에 일부러 팔목을 부딪쳐 상해를 입고 운전자 10여명으로부터 수십만원씩의 합의금을 뜯던 보험사기꾼에 대하여 검찰이 2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면, 보험사기꾼이 나중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0여명의 피해자들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괴롭힘을 당하여도, 재판부로서는 다시 200만원의 벌금형 만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기꾼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인 것이다.

적정한 양형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질타에 대해 법관들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혹시라도 중요한 양형인자를 놓쳐 일반인의 법감정에 맡지 않는 형이 선고될까 긴장하면서 두꺼운 기록들과 씨름하고 있다.

필자와 같이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도 최근 재판에 앞서 더욱 긴장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낡고 제한된 법정형이나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 대한 재고(再考)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광주지법 판사〉

야외체험학습 갔다는데 산책만 하고 돌아왔다니

아들이 어제 가을소풍을 다녀왔다. 재미있고 즐거웠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1시간 가량 공원을 돌고 마쳤다는 것이 아닌가.

모처럼 야외체험학습을 갔다면 제대로 유익하고 보람있는 하루가 되어야할 텐데 그저 산책이나 조금하고 마쳤다니 뭔가 학교에서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

오랜만에 아이들끼리 모여 노래, 장기자랑도 벌이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임도 하며 자연보호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한다면 더욱 뜻있고 추억에 남는 소풍이 될 텐데 그냥 약간 걷고 그대로 마친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이 아닌가.

식물을 보면서 관찰도 하고 먹고 버린 쓰레기나 버려진 휴지를 줍거나 함께 운동이나 게임도 벌이는 등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나 학급에서 개발해야할 것 같다.

그러지 않아도 '소풍은 그저 하루 쉬는 날'로 인식될 정도인데 실제로 산이나 공원 한 바퀴 두르고 마친다면 너무 성의가 없고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옛날 내가 다니던 시절 소풍은 많이 걷기도 하고 여러 게임도 벌이며 집에 저녁 6시가 되어서야 도착할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요즘은 출석 점검한 뒤 조금 있다가 바로 귀가시키니 소풍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는 듯하다.

박옥희·광주시 북구 우산동

사설

기아 'V10' 위업, 지역민은 행복했다

KIA타이거즈가 국내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V10' 위업을 달성했다. 1980~1990년대 지역민들의 한과 응어리를 풀어줬던 해태타이거즈가 1997년 10월25일 잠실구장에서 LG를 6-1로 꺾고 9번째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뒤 꼭 12년 만이다. 호랑이 군단은 그 뒤 IMF 직격탄을 맞고 2001년 후반기 간판을 KIA로 바꿔 단 이후 매년 최하위를 맴돌다 올해 정규시즌 1위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

KIA가 대활약을 펼쳤던 지난 7개월간 지역민은 너무 행복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무엇하나 마음 편치 않았던 지역민들에게 타이거즈의 진한 향수와 감동을 전하며 일상의 고달픔을 잊게 하는 청량제 역할을 했다. 또한 '11전(顚)12기(起)'의 불굴의 투지를 보여줌으로써 호남의 저력을 과시했다.

KIA 우승은 극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대반전의 연속이었다. 올 시즌 출발은 개막 3연패 등 불안했다, 하지만, 5월 이후 엄청난 저력을 발휘해 정규시즌 1위를 했다. 한국시리즈에서도 2연승 한 뒤 2연패 하는 등 엎치락 뒤치락하며 마지막 7차전까지 가 팬들의 마음을 끝까지 졸이게 했다. 특히 한국시리즈 우승을 결정지은 7차전에서는 한때 5대 1까지 뒤져 패색이 짙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붙은 끝에 나지완 선수의 9회 말 홈런으로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했다.

타이거즈가 호남의 자존심을 되찾으며 명가(名家)로 부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투타의 안정된 전력과 '조갈량' 이라 불림만큼 탁월한 용병술과 리더십으로 팀을 이끈 조범현 감독의 지도력의 조화라 할 수 있다. 올 시즌 무려 24번이나 홈구장 만원을 이룰 정도로 열렬한 성원을 보낸 지역민과 팬들도 큰 버팀목이 됐음은 물론이다.

'V10'이란 위업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부끄러운 점도 있다. 프로야구 8개 구단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열악한 환경의 홈구장 때문이다. 최고 명문구단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야구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KIA타이거즈 선수단에 축하를 보내며 앞으로도 V11, V12…의 위업을 계속 이어가기 바란다.

기대 못 미친 국정감사, 제도 개선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23일로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타당성과 세종시 이전 논란,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등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전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인사와 예산 등 호남 소외의 구체적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도 전체적으로 미흡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피감기관의 국회 경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늑장 자료 제출도 국감을 무력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감 전날 밤에 2천 쪽에 달하는 자료를 보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 수질예측 자료를 국감 30분 전에 서류상자 16개 분량으로 제출됐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이나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국정감사의 목적은 입법활동과 예산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부의 부정·비리를 적발하거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국정 운영이 과거에 비해 투명해지고 특히 행정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현재와 같은 방식의 국감 제도론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1년에 20일 정도 반짝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1년 내내 국회가 정부기관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상임위별로 감사를 벌일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

無等鼓

막걸리 열풍

"막걸리는 술이 아니고/밥이나 마찬가지다/밥일 뿐 아니라/즐거움을 더해주는/하나님의 은총인 것이다"(천상병 '막걸리')

어릴 적 힘든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는 찌그러진 양은 주전자를 내밀곤 하셨다. 아랫동네 가게에서 막걸리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이었다. 돌아오는 형제의 손에 들린 주전자는 늘 반쯤 비어 있었다. 뜨물처럼 텁텁하고 뿌연 빛깔이지만 달짝지근함에 반해 한 모금 두 모금 맛보다 보면 두 볼이 발그레 달아오르기 일쑤였다.

이 땅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주인 막걸리는 누구나 즐겨 마시던 술이었다. 소주와 맥주가 보급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가격이나 알코올 농도에 부담이 없어 서민들이 일상의 시름을 달래기에 제격이었다. 땀흘린 농부들의 갈증을 덜어주는 농주로 애용됐다.

제조법도 복잡하지 않다. 찹쌀이나 멥쌀을 물에 불려서 찐 다음 수분을 건조시켜 고두밥을 만든다. 이 '지에밥'에 누룩과 물을 섞고 일정한 온도에서 발효시킨 것을 청주를 떠내지 않고 그대로 걸러 짜낸다. 좋은 막걸리는 단맛과 신맛, 쓴맛, 떫은맛이 잘 어우러지고 여기에 감칠맛과 시원한 맛까지 더해져야 최상급이다.

막걸리가 화려하게 재기하고 있다. 웰빙 바람에 젊은이들은 막걸리 집으로 모여들고, 정상회담의 건배주로도 애용된다. 미용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소문에 일본 관광객들의 싹쓸이 쇼핑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출량도 크게 늘고, 백화점에서도 맥주보다 많이 팔린다. '막걸리 열풍'이라 할 만하다.

종류도 다양해졌다. 각종 과일즙이나 다양한 색소를 첨가해 미각과 시각을 자극하는 퓨전 막걸리는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단점으로 지적됐던 숙취와 트림도 크게 완화됐다. 막걸리가 다시 국민 애용주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술이 되어 쌀 문제 해결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무한 변신'을 응원해 본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